

교사불자회 신심 '재무장'

전국교사련등 수련회 · 큰스님초청법회 열어

겨울방학을 맞아 교사불자들이 수련회와 큰스님 초청법회로 신심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교사의 신 행교육은 학생회 창립과 청소년포 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국교사불자연협회(회장 임완숙)는 16일부터 18일까지 1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 백양사에서 겨울수련회를 개최했다. 수련회는 토전스님의 좌선, 이영일선생의 '깨달음의 이정표' 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사불자연협회는 신행발표회에 이어 회향식에서 창립1주년 기념법회도 함께 봉행했다.

임완숙회장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참심으로 신심을 증진하고 참나를 찾는 데 주력했으며 입자순례로 마음을 추스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천태종 교원불자회(회장 박연생)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삼광사에서 1백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제1회 동계수련법회를 가졌다.

박연생회장은 "이번 수련대회를



천태종 교원불자회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삼광사에서 제1회 동계수련법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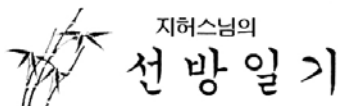
통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각 부문별 학생포교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불자들로 구성된 천태종 교원불자회는 매년 한차례 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산교사불자회(회장 양원익)는 19일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을 초청하여 제1회 대전사초청법회를 갖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열리는 이번 법회는 관음사와 부산시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신도회가 후원하며 부산시내 전체교원을 초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보성스님(송광사 방장)의 법문을 비롯하여 관음사주지 지현스님의 법문과 발우공양 신행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김원우 · 천미희 기자 (www.kim@buddhopia.com)

무욕은 대욕인가



10월 20일 선방의 생태

선방의 구성원은 극히 복잡적이다. 실제적인 이질성과 내용적인 다양성이 매우 뚜렷하다. 먼저 연령을 살펴보면 16세의 홍안으로 부터 고회의 노안(老顔)에까지 이른다. 세대적으로 격(隔)이 3대에 이른다. 물론 세수와 법랍(스님이 된 뒤로부터 치는 나이)과는 동일하지 않지만,

다음에 출신 교장을 살펴보면 8도 출신들이 제각기 제교장의 독특한 방언을 잊지 않고 수구초심(首丘初心) 교향을 잊지 않음에 가끔 젖는다. 대부분의 복방 출신들은 노·장년층이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사회적인 학력에서는 교문을 밟아보지 못했는가 하면,

취질 수밖에 없다. 견성은 끝내 자아의 분방한 연역(演譯)에서 적료(寂寥)한 자아로 귀납되어야 한다. 비정속에서 비정을 씹으면서도 끝내 비정을 낚지 않으려는 몸부림, 생명을 걸고 생명을 찾으려는 비정한 영혼의 편력(모험)이 바로 선객들의 생태다.

진실로 이타(利他)적이기 위해서는 진실로 이기적이여야 할 뿐이다. 모순의 극한에는 조화가 있기 때문일기.

10월 25일 선방의 규범

선방에 접래되는 생활규범이 있으니 그것은 두량 죽난 복발분(頭量 足履 腹八分;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배는 滿腹에서 2분이 모자라는 8분)이다. 의식주의 간소



그림 · 이준석

대학원 출신까지 있다. 불교적인 학력(강원)에서는 <초발심사경문>도 이수하지 않았는가 하면 대교(大敎)를 마치고 경장(經藏)에 통달한 대가도 있다.

다음으로 출신 문벌로 보면 재상가(宰相家)의 자제가 있는가 하면 비복(婢僕)의 자제도 있다. 물론 선방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도 문제될 바 아니지만 그래도 견성하지 못한 중생들인자 유유상종은 어쩔수 없이 휴게시간에는 개리개리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 내분이나 갈등이 우려되지만 출가인들이어서 그 점은 오히려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출신성분이 다른 모임이긴 하지만 전체가 무시되고 개인이 위주가 된다는 점이다. 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처음도 자아(自我)요, 마지막도 자아다. 수단도 자아요, 목적도 자아다. 견성하지 못하고서 대아(大我)를 말함은 미망이요, 위선일 뿐이다.

철저한 자기분위의 생활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극히 비정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비정한 자기분위의 생활이 틀이 생기거나 선결이 생기면 수도란 끝장을 알리면서 선객은 대타(怠惰)에 사로잡힌 무위도식배가 되고 만다. 자기자신에게 철저하게 비정할수록 견성의 길은 열려지는 것이다. 전후 좌우 상고 하찰(上顧下察)에 보아도 견성은 끝내 혼돈된 자아로부터 출발하여 조화된 자아에서 법

한 생활을 표현한 극치이다. 선방에는 이불이 없다. 좌선할 때 깔고 앉는 방식으로 발만 덮고 잠을 잔다. 그래서 선객의 요품(要品)중의 하나가 바로 방석이 다. 이주할 때에는 바위에 눕어가지고 다닌다.

선방의 하루 급식량은 주식이 일인당 세움이다. 아침에는 조죽(朝粥)이라 하여 죽을 먹고, 점심에는 오공(午供)이라 하여 쌀밥을 먹고, 저녁에는 약식(藥食)이라 하여 잡곡밥을 약간 먹는다. 부식은 채소류가 위주이고 가끔 특식으로 콩을 원료로 한 두부와 김, 미역이 보름달을 보듯 맛볼 수 있다.

선객이 일년에 소비하는 물적인 소요량은 다음과 같다.
*주식비: 3월×365일 = 1,095음
1,095음×15원 = 16,425원
*부식 및 잡곡은 자급자족
*피복비: 승복 광복 20마×50원 = 1,000원 내복 1,500원
신발 고무신 2족×120원 = 240원
합계 2만원이면 족하다. 그래서 선객은 모

를지기 '삼부족(三不足)'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있다. 식부족의 부족 수부족(食不足 衣不足 睡不足)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추태는 갖가지 욕망의 추구에서 비롯되는데 욕망에서 해방은 되지 못했으나 비면만이라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속의 70노파가 산문의 홍안남자(紅顏衲子)에게 먼저 합장하고 고개 숙이는가 보다.

그러나 잘 따지고 보면 남자는 철저하게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몸부림이야 감히 입두도 못낼뿐더러 생사문제까지 의탁해버린 부처가 되겠다는 대욕(大慾)에 사로잡혀 심산유곡을 배회하면서 면벽불(面壁佛)이 되어 스스로가 정신과 육체에서 열(熱血)을 착취하는 고행을 자행하는 것이다. 무욕(無慾)은 대욕(大慾)때문일기.

선객은 스스로가 인간은 끝내 견성하지 않으면 안될 고집(苦集)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고(苦)의 땅 위에 고의 집을 짓고 고로써 울타리를 치고 고의 옷을 입고 고를 먹고 고의 땅을 쓰고 고에 포용된 채 고의 조임을 받아가면서도 고를 넘어서려는 의지만을 불붙고 살아간다. 만약 이 의지를 놓친다면 그때는 생의 모독자가 되고 배반자가 된채 암흑의 종말을 고할 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운명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선객은 숙명의 소산이 아니라 운명의 소조(所造)이다. 숙명은 자기 이전에 던져진 의지와 주어진 질서에서 생애적으로 어쩔수 없는 선천적인 사상이지만 운명은 자기자신의 의지와 자유로이 선택한 후천적인 현실이다. 그래서 숙명은 필연이지만 운명은 당위요, 숙명이 불변이라면 운명은 가변이요, 숙명이 한계성이면 운명은 가능성을 의미한다. 내가 감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하고 거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숙명의 소산이다. 그

자신에게 비정할수록 견성길 열려 선객에게 밥·옷·잠 '3부족' 불문율

활기 되찾는 직장직능단체

대경연동회 · 부산운불등 창립 및달아

신년들어 직장·직능단체 창립이 줄을 잇고 있다. 경제한파로 어려웠던 98년 상황을 벗어나 올내는 직장 직능단체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아니냐는 반가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새정치국민회의 대구경북연동회가 창립되는 것을 비롯하여 한국운전기사불자연협회 부산지회, 대전 비룡산악회, 불국사운전불자회가 최근들어 창립했다.

대구경북연동회는 최근 준비모임을 갖고 준비위원회에 이용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을 위촉했다. 연

동회 이상근사무국장은 "대구경북연동회는 지역불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협회 부산지회(회장 조종인)도 10일 동명불원에서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상임법사에 장산스님 이사장에 감진석씨를 추대했다. 8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된 운불련 부산지회는 한국불교자원봉사회와 무료급식활동을 펼치고 교리공부를 통한 개인신행증진에 노력키로 했다.

또 대전 비룡산악회가 10일 창립법회를 갖고 출범했다. 대전시 용정동 용정주유소에 사무실을 마련한 비룡산악회는 초대회장에 이재상씨를 선출했다.

이어 최근 경주 불국사운전불자회(회장 안중대)도 경주 불국사교육원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안중대회장은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 불발홍포에 앞장서고 경주를 찾는 불자들의 친절한 손과 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www.kim@buddhopia.com)

보훈병원법당 점안법회

보훈병원 법당(상임법사 지문) 창립 5주년기념 및 점안법회가 14일 보훈병원내 종합재활센터 1층에서 개최됐다.

광주운불 총재 천운스님

광주불교운전자회(회장 김용문)는 13일 향림사에서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운스님 총재추대식을 개최했다.

우리 모임에선

이날 추대식에서 천운스님은 "운전불자회원은 부처님 법의 포교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가정에서도 부부화목과 효의 실천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정법회장 류지순씨

대구개인택시정법회 회장 이취임법회가 14일 정법회 법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8대 회장에 류지순씨가 취임했다.

불교산악인련 신년하례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는 22일 오후2시 장충동 대현실업 회의실에서 신년하례식을 연다.

이날 신년하례식에서는 99년 사단법인 설립계획과 한라에서 백두까지 연달가 행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1999년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에 설립한 옥전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로 지정이 되어 불교 교역자의 의견의 전문성과 정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각 종단과 관계없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내용
 - 실기 강의

| 학년 | 강의내용 | 모집인원 | 요일/시간 | 교수진 |
|-----|-------|------|-------------|----------|
| 1학년 | 상주권공과 | 50명 | 월,수 오후 3~5시 | 오 송강 스님 |
| 2학년 | 각배과 | 50명 | 목 오후 3~5시 | 조 인각 스님 |
| 3학년 | 영산과 | 50명 | 금 오후 3~5시 | 박 송암 큰스님 |
 - 특수과 : 목탁, 태징, 요령, 복치는법, 바라, 나비춤, 법고춤 등 단, 상주권공과 이상을 수료한 자 (화요일 오후 3~5시 / 교수:한동희스님)
 - 이론 강의 : 불교의식이론, 치문(화요일 오후 1시~2시 30분/교수 : 심만준 스님)
- 응시자격 :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1)입학원서 (2)이력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4)증명사진 3매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2월 5일 ~ 3월 2일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범음대학 교무처 (02) 392-3234 (범음대 직통) (02) 392-3007, 3008
- 합격자 발표 : 1999년 3월 4일 발표 개별 통지
- 입학일 : 1999년 3월 8일 오후 2시 (봉원사 설립전)
- 특 전 : 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 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 및 정회원 (전수생이상)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전화 392-3234(직통) / 392-3007, 3008 FAX 393-9450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는(자연형) 테크핀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항비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항비를 신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낫니다. 항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생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임의의 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동의 효능, 의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두통이 있거나 빈번이 있다
- 불면증이 자주 있다
-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기미가 있다
-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우울증이 있거나 억울이 있다
-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생리때 뱃배가 고통스럽다
-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편 편이다
-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목이 예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변비가 심한 편이다
- 덜노는 감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체원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 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항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재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항비팩을 배꼽(신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항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항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